

보도자료

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3. 3. 22(수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성과	스마트시티과
담당	과장 심순옥, 스타트업육성팀장 김선영, 담당 강영두(032-453-7484)

인천경제청, GS칼텍스 스타트업 혁신기술로 스마트주유소 만든다

4월19일까지 3개사 내외 참여 스타트업 선발...기업별 최대 3천만원 실증비용 등 지원
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실증 브릿지 사업과 관련해 ‘GS칼텍스 스마트(Smart)-X 에너지(Energy) 프로그램’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4월19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.
- 이 프로그램은 GS칼텍스가 인천 및 인천 인근 지역 직영 주유소 24곳을 실증 자원으로 제공하고 인천경제청과 인천테크노파크는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제시, 스마트 주유소의 비즈니스를 함께 할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사업이다.
-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스타트업 중 선발되며 GS칼텍스 직영 주유소 네트워크 및 자산인 유희부지·유희공간을 활용해 GS칼텍스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시하는 스타트업이 지원 대상이다.
- 인천에 소재하거나 선발 후 사업기간 내 인천으로 사업장 소재지(본사, 연구소, 지점) 이전이 가능한 스타트업은 신청할 수 있다.

- 지원 규모는 3개사 내외를 선발, 기업 별 최대 3천만원 이내의 실증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이다. 자세한 공고 내용과 사업 신청은 인천 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(startuppark.kr)에서 확인 가능하다.
- 인천 스타트업파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2개사를 선발했다. 한 스타트업은 인천국제공항 주유소에서 무인 외화 환전시스템 실증을 통해 별도 구매계약 2건과 해외 진출을 위한 일본 법인 협약 체결 등의 성과를 거뒀다. 또 다른 스타트업은 인천 소재 논현신도시 주유소와 오일주유소에서 전기차 배터리 진단 서비스를 운영해 전기차 이용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.
- 인천 스타트업파크 관계자는 “민간기업인 GS칼텍스와 실증 업무 협력은 스타트업의 성장과 매출에 큰 도움을 줄 것”이라고 밝혔다.